

건설업자간 협력 우수업체혜택 부여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발표

국토해양부는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대·중소건설업자간 상호협력력을 잘하는 2,668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지난달 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데, 평가 접수별 가점내역은 다음과 같다. 올해의 경우 2,668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11,796개, 2011.5월 기준)의 22.6%에 해당되며, 작년(3,400개)보다는 21.5%가 감소했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n.go.kr)내의 국민마당-정보공개(사건공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외에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설업체간 상호협력적 기업문화 조성과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 '평창공동성명' 채택



한중일 3국 관광장관들은 관광위가 발생 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나라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가 관광상품 등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관광이

시어티브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의 관광 교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6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들은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정부대표단과 민간관광협회장 등 450여명이 참석했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중앙),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사진 오른쪽), 오오하타야 키히로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사진 왼쪽)은 '평창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5박 6일 알뜰여행 떠나자!

관광공사, '구석구석 탐험대 모집'

여름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한국관광공사는(사장 이창) 여름철 집중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와 공동으로 쏘나타하이브리드 무상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관광 수요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국관광공사와 저탄소 녹색 성장

추이에 맞추어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현대차가 손을 잡고 벌써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5개 테마별 여행코스를 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갈 수 있으며, 숙박 1박을 무료로 이용하고, 쏘나타하이브리드를 타고 친환경, 경제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으며, 여행기간은 7월 8일부터 시작해 8월 31일에 마무리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웹사이트내 이벤트코너와 팸트 고투어 웹사이트, 그리고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매주 50팀씩 총 300팀의 고객을 선정하여 5박6일간 무상대여한다.

숙박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테마여행지에서 매주 금요일만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여행일자 및 추천 테마여행지를 확인 후 오후 4시 전 신청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여행 후 생생한 여행후기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해당 웹사이트 URL을 올리면 우수여행

후기를 선정해 아이패드2, 코리아 패스(5만원권), 문화상품권(1만 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관광공사 사장이 국내진행팀 팀장은 "고유가 시대 친환경·경제적인 하이브리드카를 이용한 테마별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숙박 무료제공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별 여행코스를 골고루 제시되어 여름철 휴가기간에 맞춰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 자원봉사센터 건립'

양해각서 체결, 임직원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



현대건설이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으로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국립공원 내에 자원봉사센터 5개소 설립을 위해 6억원을 기부하고, 공원관리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적극 지

원하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국내엔 매년 국립공원 자원봉사로 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원보호 활동 프로그램 교육과 현장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 없어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북한산 도봉 및 우이지구, 지리산, 속리산, 태안해안 등 총 5곳에 설립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연환경이 건강하게 숨 쉬어야 우리네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에 절감한다"며 "현대건설은 기존에 해왔던 사회공헌활동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더 생생하게"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작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자료를 6월부터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http://air.ngii.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2010년 항공사진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전국을 25cm급 고해상도 촬영을 실시한 것으로, 현재 국내 서비스 중 가장 최신의 영상자료이다.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회마을, 우포늪, 성산일출봉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매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

여 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행지의 최신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05년 5만매의 항공사진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약 26만매의 자료를 국토공간영상정보서비스에서 마무누리(마무('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 + 누리('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이라는 의미)(영상검색·신청서비스)와 라온누리(라온('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과 누리의 합성어로 즐거운 세상이라는 의미)(영상

통합사용자 참여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위치기반의 테마 정보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항공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산지관리법」개정 등과 같이 과거 지형확인이 필요한 공공 및 민원요청에 따라 국토공간영상정보(참고)를 이용한 자료제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 이후 약 150만매의 자료가 열람되었으며, 앞으로 그 활용분야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고품질의 정사영상제작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국토해양부(공간정보기획과)의 3D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웹서비스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 건설확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최저주거면적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미달가구 감축 및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입주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 수행 등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키로 하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인근지역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현행) 재개발: 85㎡이하 80%, 재건축: 85㎡이하 60%)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설금융의 Best Value Partner

당신이 건설만 생각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힘이되어 드리겠습니다

건설인의 든든한 금융파트너,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당신의 일은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의 일은 당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더 든든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건설금융의 Best Value Partner
전문건설공제조합